조원석 농협 신임 김제시 지부장 취임

"농업인과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김제시지부 조원석(49) 지부장이 3일 첫 취임 후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임 조원석 지부장은 김제 백구 출신으로 전주대와 전북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93년 농협에 입사하여 2005년까지 전라북도 내의 농협은행 영업점에 근무하였고, 2006년부터는 농협경제지주로 자리를 옮겨 산지유통부 차장, 농업경제대표이사 비서, 자재부 팀장, 마트상품부 국장을 거치며 농협의 경제사업은 물론 은행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한 인물이다.

특히 농협경제지주 근무시에는 농협의 농산물 판매사업 전속 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 제도를 도입하여 육성하였고, 노지채소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식품부와 함께 채소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조원석 지부장은 "고향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김제시 등 유관기관, 지역의 농축협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감진년에도 '희망'을

남원시 유기질비료협의회, 남원 희망2024 나눔캠페인 동참

남원시는 3일, 시 유기질비료협의회(회장 김병규)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비료협의회는 가축분퇴비, 음식물찌꺼기, 곤충배설물을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총 8개 업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기탁은 가축분퇴비 생산업체 6곳(복지비료 영농조합법인, 바래봉비료, 대지, 춘향골농협, 지리산낙협, 새남원)이 참여했으며, 기탁식은 김병규 회장, 박영수 총무 등 회원들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김병규 회장은 "협회에서는 매년 기부에 동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 실천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에서도 민들레 홀씨가 퍼져나가듯 나눔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데 앞장서는 등 갑진년에는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며, 비료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진행,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청 주민복지과(063-620-6333)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양병호 교수, 언어문학회 신임 회장 선출

전북대학교 양병호 교수(국어국문학과)가 2024년도 한국언어문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임기는 1년이다.

1963년 설립된 한국언어문학회는 1,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어국문학계의 대표적 학술단체다.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한국언어문학'을 발간하면서 매년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병호 신임 회장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연구 성과를 도출해 한국언어문학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신임 양병호 회장은 전북대 인문대학장, 전국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장, 국어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장은성기자

우석대 임성규 실장, 장학재단 이사장 표창

우석대학교 임성규 실장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3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임 실장은 전국대학교 장학·학자금융자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 및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성규 실장은 "앞으로도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대학과 한국장학재단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군산해경 김래규씨, 순창군에 고향사랑 기부

순창군은 2일 군산해양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순창 기업인의 가족 김래규 씨가 순창군 고향사랑기부 최고액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래규씨는 지난 연말 순창군청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씨는 순창군 순창읍 출생으로 30여년 전까지 순창군에 거주하다가 해양경찰로 근무하게 되면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타지에서 생활하던 중 고향에서 종합광고 전문업체 대성을 운영하고 있는 동생 김래진 대표로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돼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했다.

김래규 씨는 "멀리서나마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며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고향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고향사랑을 보여주신 김래진 대표 가족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항상 웃을 수 있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동참 이어져

무주군 설천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용) 위원 25명이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1백만 원을 기탁한 이들은 "우리 지역 누구고 춥고 배고픈 이 없기를 바라는 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한다"라며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실천하는 설천면주민자치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립공원 원추리봉사단에서도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 전달을 위해 무주군을 찾은 김경자 회장은 "국립공원 원추리봉사단은 항상 지역사회와 함께 간다는 자부심이 있다"라며 "회원들의 따뜻한 정성이 무주와 이웃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공원 원추리봉사단은 국립공원 소속 자원활동가들로 그동안 구천동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정권 디에이치 대표, 부안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부안 출신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생활기반 전문업체 ㈜디에이치 글로벌을 운영 중인 이정권 대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24만원을 기부해 2024년 장학금 1호 기부자가 됐다.

이정권 대표는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을 이뤄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과 뜻을 함께 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고향 학생들이 부안군 장학사업을 통해 공부에 전념해 지역의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매년 첫 기부자로 장학금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국 최초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실현으로 부안형 교육을 실천해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에이치 글로벌은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 완제품을 생산하는 혁신기업으로 최고의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기술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녹생경영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운봉 춘향골 파프리카 작목회, 성금 기탁

남원시 운봉읍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 작목회(31개 농가 참여, 회장 박태성)는 지난 2일(화) 회원들이 성심성의껏 모은 성금 100만원을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파프리카 작목회는 파프리카를 지역 대표 특화작물로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 전문 생산단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태성 회장은 "작은 성의나마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나은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양재우 운봉읍장은 지역단체의 자발적인 이웃돕기 참여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악예술원 소리뫼, 김민수 대표 가족 익산사랑장학금 기탁

사단법인 국악예술원 소리뫼 김민수 대표 가족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2005년 창단한 소리뫼는 '생활 속의 전통, 즐거운 예술'이라는 기본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로 2019년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을 한데 이어 지난해 말 두 번째 기탁으로 따뜻한 연말을 선사했다.

익산 숨은 보석에도 선정된 김민수대표의 가족은 배우자와 세 딸 모두 판소리, 거문고, 무용, 타악 등 국악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도 보기 힘든 국악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배우자 최미자씨, 차녀 김희라씨와 함께 기탁식에 참여한 김민수 대표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의 나눔이 우리지역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한국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이사장은 "평소 예술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소리뫼 김민수 대표 가족이 우리시 학생들의 후학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익산사랑 장학재단도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시 약사회,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후원

남원시보건소는 시 약사회(회장 임진일)가 3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 이불 30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시 약사회장, 시 보건소장, 보성마을 통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온정 나눔에 함께했으며, 기탁한 물품은 지역 내 한센인정착촌인 보성마을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임진일 회장은 "추워진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기탁하게 되었다"며 "올 겨울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한용재 보건소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남원시 약사회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피면 주민자치위,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 기탁

임피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진범석)는 지난 3일 임피면사무소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진범석 위원장은 "올해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고, 신년을 맞아 동절기 한파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현 임피면장은 "우리면 맞춤형복지계는 한파에 난방시설, 부식품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열악한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 그분들에게는 이런 기탁자들의 성금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주민자치위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남원 향교동 곳곳 연말연시 성금 기탁

남원시 향교동은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이웃들이 연말연시를 온기로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 향교동 숲볼링장에서 지난 2일 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향교동에서는 연말연시 따뜻한 손길이 향교동에 꾸준히 이어지며, 백제양봉원 200만원, 영광교회 100만원, (유)선일 100만원, 산곡, 광석, 보성, 장승, 미동 구룡마을, 1·2·4·18·7통 주민, 오성주유소, 오성덕과태양광발전소, 대방주류, 양문교회, 조은판넬, 남원홈마트, 최수인 내과 에서 총 1,964만원을 기부했다.

황의종 향교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정성을 모아 주시는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안성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어져

무주군 안성면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무주군 안성면이장협의회와 신안기공사에서 각각 성금 1백만 원을 안성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으며 안성작은사랑모임회에서도 90만 원을 기탁했다.

안성면이장협의회 김진명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에게 든든한 용기를 주고 싶었다"라며 "이웃을 생각하는 이장님들의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안기공사 정천수 대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위축되는 분위기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는 삶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성작은사랑모임회 황무성 대표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 · 지원하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